

## 사상체질에 따른 임상적 진단검사 결과 비교

박 지 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이제까지 한국 간호는 서구에서 개발된 간호중재만을 고집하여 방향도 없이(Shin, 1999) 양적인 발전에 만족하여 왔으나 최첨단 의료장비를 앞세운 세계 의료개방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 간호계도 한국적인 간호이론 및 중재개발을 통해 독자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Shin, 1999). 간호학의 발전 방향은 간호의 주체인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바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간호하기 위해선 우선 우리 민족 특유의 기질과 문화, 사상속에 발전해온 전통의학을 간호학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사상구조론'을 바탕으로 태양인(太陽人), 소양인(少陽人), 태음인(太陰人), 소음인(少陰人)의 네 가지 체질을 설정하고 각 체질에 대한 생리, 병리, 진단, 변증(辨證), 치료와 약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계를 갖고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우수한 이론이다(Song, 1996; Jung & Kim, 1999). 체질에 따라 허약한 장기가 다르고 병의 진전이 다르며 약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면 마땅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 치료법, 그리고 사용하는 약물도 달라야 하는데

과거의 의학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간을 획일적으로 간주하여 개개인의 체질적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큰 장애가 되었고, 오진이나 약물의 부작용과 같은 여러가지 폐단을 초래하여 왔다(Kim 등, 2002).

체질은 개체의 형태적, 기능적 특성으로서 질병의 발생과 치료방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체질구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 왔으며, Rho(1971)는 이러한 체질적 특성은 생리, 병리상태 등은 물론 약에 대한 반응과 심리상태, 성격, 언행, 음식의 기호나 적성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개인차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사람의 장부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 각 오장육부의 기능이 허하고 실함이 있어 이것으로 각각 체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심장을 중심으로 비, 폐, 간, 신의 네 장기의 기능이 상대적인 대소와 허실에 의하여 체질이 결정된다(The Study Group of Oriental Medical Nursing, 1998). 사상의학에서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각 사람들이 가진 장기 기능의 대소 차이와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외모, 심성, 병증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태양인은 폐가 튼튼하고 간이 약한 체질로 적극적이고 진취성이나 인내력과 대담성이 적고 거스를때는 격노하는 성격으로 상기, 안질, 각약 같은 질환 발병률이 높다 하였고, 태음인은 간이 튼튼하고 호흡기가 약한 체질로 성격이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으

\* 아주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투고일 2002년 9월 6일 심사위원회 2002년 9월 24일 심사완료일 2003년 5월 26일

나 포용력이 있으며 인자하여 타인과 잘 어울리며 고혈압, 중풍, 호흡기 질환의 발병율이 높다 하였으며, 소음인은 위장이 약하고 신장이 발달한 체질로 성격이 내성적이고 섬세하며 조직적이고 판단력이 빠르나 무기력하여 결단력이 부족하고 급만성 위장병, 위하수증, 위산과다증, 상습 복통의 발병률이 높다 하였고, 소양인은 신장이 약하고 비장이 발달한 체질로 성격이 쾌활하고 솔직하며 동정심이 많고 타인에게 호감을 주나 치밀한 계획성이 희박하며 분주한 성격으로 만성 신부전, 상습 요통의 발병률이 높다 하였다(The Study Group of Oriental Medical Nursing, 1998).

이러한 사상의학의 체질을 고려한 질병 관리, 치료 및 예방법은 현대의 난치병이라 할 수 있는 성인병, 면역계 질환, 스트레스성 질병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한의학에서의 응용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Koh et al., 1999; Doo & Ahn, 1999), 간호분야에서도 만성질환 간호에 이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 Park, 2001). 또한 최근들어 동양 사상과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일반사람들의 체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체질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선 각 개인의 체질을 이해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기능의 허와 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Lee, Kim & Ryu, 2002; Wang, 1997).

그러나 이처럼 독창적인 우리민족의 사상의학이 대다수의 의학자에게서 등한시되어 온 것은 체질에 대한 제현성, 장부기능의 차이, 그에 따른 생리, 병리의 차별성 등 체질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 때문이며(Cho et al., 1996), 실제 현장의 임상자들은 체질을 진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임상적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ark, Park & Choi, 1999). 이에 사상체질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체질진단지표를 개발할 목적으로 체질별 진단지표를 검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즉, Lee와 Sul(2000)은 사상체질과 임상검사 결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 검사 수치가 태음인에서 높았고 간기능검사 수치도 태음인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위장질환, 요로감염, 빈혈 관련 비정상 결과는 소음인 체질에서 많이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사상체질과 임상검사 결과간의 상관성을 제시하면서 동서의학간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개개인의 체질 특성에 맞는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Choi, Chi, Jung, Sung, Ahn과 Koh(2001)등은 체질별 체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신체계측과 체성분 결과를 체질진단에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 한의학 연구소 주관으로 Cho 등(1996)과 Sung 등(2000)에 의해 수행된 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연구에서도 양의학적인 진단검사 결과가 객관적인 체질진단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 간호학 분야에선 사상체질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을 간호학적인 지식으로 축적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비한 실정이다. 사상체질의 경우 실제로 간호학 분야에선 Kang, Choi, Lee와 Jeon(1995)이 체질별 자가간호 교육의 효과를 연구하고 Moon 과 Jung(1996)이 사상체질 이론의 간호학적 접근을 소개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Wang(1999)이 사상체질별 양생술, Kim 등(1999)이 체질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Lee(2000)가 사상체질별 향 요법의 효과를, Kim(2000)이 체질별 건강증진행위를, Kim과 Park(2001)이 체질별 스트레스와 무력감간 관계를, Kim 등(2002)이 체질별 섭생의 효과를 그리고 Lee, Kim 과 Ryu(2002)가 사상체질과 A/B형 성격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그쳐 사상체질의 특성을 심층 이해하고 비교하여 간호에 접목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자를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사정함에 있어 주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진단검사 결과가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간호분야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체질에 따라 생리, 병리, 질병에 차이가 있고 약물, 식이 등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름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Kim 등, 1999; Kim & Park, 2001; Kim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체질에 따라 진단검사결과에 차이가 있는가 파악하여 간호과정 적용시 체질을 고려한 개별적 간호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리 고유의 사상체질 이론을 간호학에 접목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는 사상체질에 대한 간호학적 지식축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한국적 간호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검

진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체질에 따른 검사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개인의 체질별 특성을 간호과정에 반영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체질에 따른 체구성 관련 검사결과를 비교한다.
- 2) 체질에 따른 임상병리검사 결과를 비교한다.
- 3) 체질에 따른 폐기능검사 결과를 비교한다.
- 4) 성별에 따른 임상적 진단검사 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 1) 대상자의 사상체질 분류를 사상의학 전문가의 최종 진단없이 QSCCII 설문지를 이용해서만 실시하였다.
- 2) 연구참여를 수락한 검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 3) 정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정상 범주내의 검사결과만을 이용하여 체질간 비교를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수원에 소재한 A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검진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200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내원하여 설문지를 통한 체질 감별에 동의한 대상자중 내원 당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20세 이상 60세미만의 기준을 만족하는 195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사상체질 분류 설문지

대상자의 체질을 분류하기 위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사상체질분류검사지(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 II; QSCCII)를 사용하였다(Song, 1996). QSCCII 설문지는 기본 내용이 사상의학의 원전격인 [격치교]와 [동의수세보원]에 근거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것으로 사상체질의학회에서 체질진단의 공식검

사방법으로 공인된 것이다(Koh et al., 1999).

설문지는 각 문항마다 답가지를 제시하여 대상자가 선택하게 하는 문항 15개(A1 - A15)와, 내용만 제시하고 O, X를 표시하게 하는 문항 106개(B16 - B121) 등 총 1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선택형 문항은 체격, 체형 등 외모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OX 형 문항은 행동특성(29개), 몸특성(20개), 일처리/장단점(19개), 평소 마음(14개), 대인관계(13개), 문제점(6개), 감정 특성(5개)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내적일관성의 경우 Cronbach's alpha .72 - .81, 검사-재조사 신뢰도는 .74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Cronbach's alpha = .77 로 나타났다.

#### 2) 사상체질 진단 프로그램

QSCCII 설문지를 통해 얻은 응답을 Win QSCCII 99 version(주식회사 쓰드메디컴/대한한의학회 사상의학회)에 입력하여 체질진단 결과를 얻었다. QSCCII 진단프로그램은 객관적인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PC용 프로그램으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의학과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Song, 1998) 표준화 작업을 거쳐 객관화된 진단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 3. 진단검사 및 측정방법

#### 1) 임상병리검사

자정이후 금식한 상태의 대상자에게서 오전 9-10시 사이에 혈액을 채취하여 본 연구기관의 임상병리과에 의뢰하여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색소, 혈소판수 등 혈액학적 검사는 자동혈구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알부민,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산, 크레아티닌, Serum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SGOT),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SGPT), Blood urea nitrogen(BUN), 빌리루빈, Lactate dehydrogenase(LDH), Alkaline phosphatase(ALP) 등 생화학적 검사는 자동화학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는 본 연구기관이 1998년 미국 임상병리학회 심사기관인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한 바 있으며, 임상병리학회가 주관하는 우수검사실 신입제의 인증과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의 인증을 획득한 바로 검증할 수 있다.

2) 폐기능검사

노력성 폐활량, 노력성 대 1초 호기량비, 전폐용량 등은 Vmax series Autobox(SensorMedic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체구성 관련 검사

체구성을 비교하기 위해 건강증진센터에 설치된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였고 Inbody 3.0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와 비만도를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체질분포는 빈도와 백분율을, 검사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체질간 평균차이는 t-test 와 oneway ANOVA로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결혼, 교육정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연령은 40대(43.1%)와 30대(36.4%)에 많이 분포하였고 성별은 여자(53.8%)가 남자(46.2%)보다 약간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대상자의 82.1%가 기혼이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52.3%로 많았다.

2. 대상자의 체질분포

체질분류 설문지에 응답한 195명의 체질분포는 <Table

<Table 1> Distribu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n	%
age	22-29	15	7.7
	30-39	71	36.4
	40-49	84	43.1
	50-60	25	12.8
sex	male	90	46.2
	female	105	53.8
marriage	single	8	4.1
	married	160	82.1
	no reponse	27	13.8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	12	6.2
	high school	71	36.4
	college ↑	102	52.3
	no reponse	10	5.1
total		195	100.0

2>에서와 같이 소음인이 4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태음인(36.9%)이었으며 소양인은 16.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체질분포를 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 소음인과 소양인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태음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40대의 경우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많았다.

성별에 따른 체질분포에선 소음인의 비율은 여자가 평균보다 높은 반면 태음인의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체질분포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3. 체질에 따른 각종 진단검사 결과치의 평균비교

1) 체구성 관련 검사결과 비교

체구성과 관련하여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비만도를 측정했을 때<Table 3>, 키를 제외하고 몸무게, 체질량지

<Table 2>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Characteristics	category	So-yang		Tae-eum		So-eum		sub total		χ <sup>2</sup> -test
		N	%	N	%	N	%	N	%	
	Total	32	16.4	72	36.9	10	46.7	195	100.0	
age	21-29	4	26.7	3	20.0	8	53.3	15	100.0	5.494 (p=.482)
	30-39	14	19.4	23	31.9	34	48.6	71	100.0	
	40-49	10	11.8	37	44.7	37	43.5	84	100.0	
	50-59	4	17.4	9	39.1	12	43.5	25	100.0	
sex	남자	15	16.7	36	40.0	39	43.3	90	100.0	.833 (p=.659)
	여자	17	16.2	36	34.3	52	49.5	105	100.0	

수, 비만도에서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ncan 검증으로 사후분석결과 태음인 체질의 측정치가 소양인, 소음인에 비해 높았다.

2) 혈액관련 검사결과 비교

혈액과 관련하여 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 혈소판 수를 측정하였으나 4개 검사중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검사결과는 없었다<Table 4>.

3) 심맥관관련 검사결과 비교

심맥관과 관련하여 맥박, 혈압, LDH를 측정했을 때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검사결과는 혈압뿐이었다. 즉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모두 Duncan 검증으로 사후분석결과 태음인에서 가장 높았다<Table 5>.

4) 간 관련 검사결과 비교

간 기능과 관련하여 총 빌리루빈,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LP, 알부민, SGOT, SGPT를 측정했을 때 9개 검사중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SGOT, SGPT 등 4개 검사에서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검사 모두 Duncan 검증으로 사후분석결과 태

<Table 3>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related index among constitutions

index	So-yang(1) mean±SD	Tae-eum(2) mean±SD	So-eum(3) mean±SD	F	p	Duncan
height(cm)	162.7±7.1	165.2±9.3	161.9±12.4	1.942	.146	
weight(kg)	59.3±7.4	68.5±11.8	58.0±8.5	25.182	.000	1=3 <2
body mass index	22.3±2.1	25.0±2.9	22.5±7.7	4.592	.011	1=3 <2
obesity	108.8±10.3	120.8±15.2	105.1±14.1	25.752	.000	1=3 <2

<Table 4> Comparison of hematologic-related index among constitutions

index	So-yang mean±SD	Tae-eum mean±SD	So-eum mean±SD	F	p
WBC(x103/uL)	5.7±1.6	6.0±1.7	5.8±4.3	.103	.902
RBC(x106/uL)	4.5±.4	4.6±.5	4.5±1.2	.121	.886
Hgb(g/dL)	14.1±1.5	14.0±1.7	13.8±3.6	.118	.889
platelet(x103/uL)	227.1±42.5	244.8±52.5	230.5±56.1	1.903	.152

<Table 5> Comparison of heart-related index among constitutions

index	So-yang(1) mean±SD	Tae-eum(2) mean±SD	So-eum(3) mean±SD	F	p	Duncan
pulse	62.3±8.0	63.0±8.1	62.0±8.1	.281	.756	
systolic BP(mmHg)	106.7±12.3	119.0±14.3	110.3±17.9	9.096	.000	1=3 <2
diastolic BP(mmHg)	67.4±9.4	74.0±10.2	68.5±10.6	7.162	.001	1=3 <2
LDH(u/L)	153.8±17.7	157.2±29.6	155.3±25.8	.195	.823	

<Table 6> Comparison of liver-related index among constitutions

index	So-yang(1) mean±SD	Tae-eum(2) mean±SD	So-eum(3) mean±SD	F	p	Duncan
tot bilirubin(mg/dL)	.7± .3	.8± .3	1.7± 8.2	.567	.568	
cholesterol(mg/dL)	183.4±31.6	200.4±35.5	183.3±33.6	5.757	.004	1=3 <2
HDL cholesterol(mg/dL)	55.1±13.9	50.3±12.7	54.6±14.0	1.973	.142	
LDL cholesterol(mg/dL)	110.0±28.3	119.7±31.3	107.0±29.6	2.920	.057	
triglyseride(mg/dL)	110.6±53.1	157.3±97.4	108.8±61.2	9.175	.000	1=3 <2
ALP(u/L)	61.7±17.1	67.4±20.5	61.7±15.7	2.293	.104	
albumin(g/dL)	4.5± .2	4.5± .2	4.4± .5	1.048	.353	
SGOT(u/L)	20.3± 5.3	24.8±13.1	19.9±13.2	3.429	.034	1=3 <2
SGPT(u/L)	24.9±12.4	34.8±28.9	20.3±11.6	10.882	.000	1=3 <2

<Table 7> Comparison of pancreas-related index among constitutions

index	So-yang(1) mean±SD	Tae-eum(2) mean±SD	So-eum(3) mean±SD	F	p	Duncan
fasting blood sugar(mg/dL)	97.0±9.1	104.2±21.3	96.8±18.7	3.556	.030	1=3 <2

<Table 8> Comparison of kidney-related index among constitutions

index	So-yang(1) mean±SD	Tae-eum(2) mean±SD	So-eum(3) mean±SD	F	p	Duncan
uric acid(mg/dL)	4.9±1.4	5.4±1.5	4.7±1.3	5.904	.003	1=3 <2
inorganic phosphorus(mg/dL)	3.8±1.3	3.8±1.2	3.8±1.1	.009	.991	
calcium(mg/dL)	9.3±.3	9.3±.3	9.1±.7	2.095	.126	
creatinine(mg/dL)	.9±.2	1.0±.2	1.9±9.7	.502	.606	
BUN(mg/dL)	12.9±2.9	13.7±3.2	12.6±3.4	2.372	.096	

<Table 9> Comparison of lung-related index among constitutions

index	So-yang mean±SD	Tae-eum mean±SD	So-eum mean±SD	F	p
FVC(x103 ml)	3.5±1.0	3.8±1.0	5.6±1.9	.486	.616
FEV1/FVC(%)	87.9±4.8	87.1±4.4	86.7±10.3	.256	.774
TLC(x103 ml)	6.8±1.9	7.2±1.9	6.7±1.9	1.854	.159

FVC : forced vital capacity TLC : total lung capacity

음인에서 가장 높았다<Table 6>.

#### 5) 췌장 관련 검사결과 비교

췌장 기능과 관련하여 공복혈당을 측정했을 때 체질간 혈당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Duncan 검증으로 사후분석결과 역시 태음인의 수치가 가장 높았다<Table 7>.

#### 6) 신 관련 검사결과 비교

신장 기능과 관련하여 뇨산, 인산량, 칼슘, 크레아틴, BUN을 측정했을 때 뇨산에서만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Duncan 검증으로 사후분석결과 태음인의 측정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8>.

#### 7) 폐 관련 검사결과 비교

폐 기능과 관련하여 노력성 폐활량(FVC), 노력성대 1초 호기량비(FEV1/FVC), 전폐용량을 측정했을 때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9>.

#### 4. 성별에 따른 각종 진단검사 결과치의 평균 비교

각종 진단검사 결과치를 남녀로 구분하여 체질간 차이를 분석했을 때 남자의 경우 체중(F=14.639, p=

.000), 비만도(F=12.445, p=.000), 수축기 혈압(F=4.039, p=.021), 콜레스테롤(F=4.743, p=.011), 중성지방(F=5.230, p=.007), SGPT(F=4.929, p=.009), 뇨산(F=4.452, p=.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체중(F=19.646, p=.000), 체질량지수(F=20.629, p=.000), 비만도(F=17.511, p=.000), 수축기 혈압(F=5.043, p=.008), 이완기 혈압(F=4.735, p=.011), 중성지방(F=4.163, p=.018), ALP(F=3.602, p=.031), SGOT(F=5.219, p=.007) 그리고 SGPT(F=5.776, p=.004)에서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우리 고유의 사상체질 이론을 간호학에 접목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질에 따른 양의학적 진단검사 결과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사상의학이 지닌 독특한 특징은 품수의학적, 심신의학적, 체질의학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Song, 1996; Jung & Kim, 1999), 품수의학적 특징에서 품수(稟受)라 함은 체질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므로 부모와 조상의 특징을 생김새와 성품에서 질병의 경향에 이르기까지 전하여 받는다는 것이며,

심신의학적 특징은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같이 있어야만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루어야한다는 것이고, 체질의학적 특징은 개체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주로 치료면에 있어서 체질에 따라 그 특징이 차이가 있으므로 체질적 차이를 감안하여 동일한 병이라 하여도 치료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Song, 1996; Kim & Kim, 1998; Kim & Kim, 1999b), 대상자를 독특한 존재로 인정하여 개별적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간호의 철학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점에서(Lee, Kim & Ryu, 2002) 사상체질의 특성을 간호학적 측면에서 재조명해 봄은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QSCCII 설문도구만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체질을 분류했을 때 타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태양인은 분류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타 연구와는 달리 태음인(36.9%)보다 소음인(46.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Park & Choi, 1999; Kim & Kim, 1999b; Kim, 2000; Kim, Cho, Jang & Choue, 2002; Lee, Kim & Ryu, 2002). 그러나 타 연구에서도 동의수세보원(Lee, 1986)에 기재된 인구 1만명당 태양인 3-4명, 태음인 5,000명, 소양인 3,000명, 소음인 2,000명의 통계적 개념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연구대상자에 따라 체질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으며(Kim, Kim & Hwang, 1992; Lee & Kim, 1998; Kim & Kim, 1999a) 다만 Kang, Choi, Lee 와 Jeon(1995)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소음인이 가장 많았다.

Cho 등(1996)이 병리검사와 사상체질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각 장기에 적용한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체질에 따른 각 지표의 평균차이를 검증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체구성과 관련하여선 모든 지표에서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Cho et al., 1996; Kim & Kim, 1999; Sung, Choi, Ji & Ahn, 2000; Choi et al., 2001; Kim, Cho, Jang & Choue, 2002)와 유사하였으나, 혈액관련 지표는 체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태음인에서 헤모글로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Kim, Cho, Jang과 Choue(2002)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렇듯 체중, 체질량, 체지방율이 태음인 체질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동의수세보원에 설명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나, 혈액관련지표는 연구마다 최고 수

치를 보인 체질이 다르게 나타나 뚜렷한 체질간 차이를 규명할 지표로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Cho 등(1996)의 보고서에서도 혈액학적 지표는 사상의학적 해석이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한 바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심맥관 관련 지표에선 체질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혈압(수축기, 이완기)이었으며, 간 관련 지표에선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SGOT, SGPT 등 4개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태음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선행연구결과(Cho et al., 1996; Sung, Choi, Ji & Ahn, 2000; Lee & Sul, 2000; Kim, Cho, Jang & Choue, 2002)와 유사하였다. 이 중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연구대상에 무관하게 선행연구(Cho et al., 1996; Sung, Choi, Ji & Ahn, 2000; Lee & Sul, 2000; Kim, Cho, Jang & Choue, 2002)에서도 태음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검사는 태음인을 타 체질과 구별하는 객관적 진단지표로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

췌장 지표로 유일하게 측정된 공복혈당은 본 연구에서는 태음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의 경우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Cho et al., 1996; Lee & Sul, 2000; Sung, Choi, Ji & Ahn, 2000; Choi et al., 2001) 공복 혈당을 체질 분류의 객관적 지표로 선정하기 위해선 추가 연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신 지표중 뇨산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태음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의 경우 최고 수치를 보인 체질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Cho et al., 1996; Sung, Choi, Ji & Ahn, 2000) 공복 혈당과 마찬가지로 뇨산을 체질진단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기엔 일관된 결과가 더 축적되어야 하겠다. 폐 지표중에선 검사항목마다 제각기 높은 수치를 보인 체질에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폐가 태양인을 대표하는 장기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대상자중에는 태음인이 없었으므로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이러한 체질에 따른 각종 진단검사 결과치의 차이는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나 남자의 경우 체중, 비만도, 수축기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SGPT, 뇨산에서, 여자의 경우 체중, 체질량지수, 비만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중성지방, ALP, SGOT, SGPT에서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통적으로 체중, 비만도, 수축기 혈압, 중성지방, SGPT 등 5개 검사는 성별에 무관하게 체질간

차이를 반영해 주는 객관적 지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11개 검사 중,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체질간 차이를 보인 5개 검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개 검사들, 즉 체질량지수, 이완기 혈압, 콜레스테롤, SGOT, 공복혈당, 노산은 특정 성별에서만 체질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양방에서 진단에 이용하고 있는 임상적 진단검사결과를 사상체질을 판별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계속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일관된 결과를 누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선 Cho 등(1996), Song(1998), 그리고 Koh 등(1999)도 그동안 체질진단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두부축진법, 유방 및 장골 척도법, 태극침법, 팔체질침법, 맥진법, 약진법, 형태학적 도식화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근래에는 유전자의 특성과 지문 또는 성문에 대한 연구까지도 시도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 아직은 사상체질분류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엔 오늘날처럼 진단검사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 외모, 심성, 병증의 주관적 판단으로 체질을 구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 양의학적 진료방법에 익숙해온 대부분의 건강전문인들은 수량화된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판별한 결과라야 신뢰감을 가지므로 체질분류에 근거한 개별적 접근을 위해선 이제마의 이론대로 臟理大小에 의해 검사 지표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분석한 연구결과의 계속적인 축적이 요구되며 축적된 연구결과는 체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사상의학뿐 아니라 간호학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개별적 간호를 제공하는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사상체질이론이 한의학분야 이외에 간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체질진단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진단지표를 검증하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200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수원에 소재한 A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성인 195명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에 따른 진단검사결과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체질분포는 소음인이 4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태음인 36.9%이었으며 소양인은 16.4%로 나타났다.
2. 전체 연구대상에 대해 각 장기별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체질에 따른 각 지표의 평균차이를 검증했을 때 체구성과 관련하여선 체중, 체질량지수, 비만도에서, 심맥관 관련 지표중에선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에서, 간 관련 지표에선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SGOT, SGPT에서, 췌장 관련 지표에선 공복혈당에서, 신 관련 지표에선 노산에서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측정치 모두 태음인에서 가장 높았다.

3. 연구대상의 성별을 구분하여 체질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지표를 분석했을 때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진단검사는 체중, 비만도, 수축기 혈압, 중성지방, SGPT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양의학적 진단검사중 일부는 체질을 진단, 분류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타당함을 알 수 있어 최근 양한방 협진 및 대체요법을 병행하는 의료계의 경향에 비추어 한국적 사상체질 이론을 간호에 적용하여 체질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는 앞으로 한국적 간호이론 및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추후과제로 다음을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 선정한 검사이외에 다른 검사항목을 찾아 반복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체질진단을 위한 지표를 추가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2. 체질에 따라 검사의 정상범주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볼 것을 제언한다.
3. 臟理大小에 따른 질환분포와 체질분포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 체질적인 분석을 해볼 것을 제언한다.
5. 체질에 따른 질환과 진단지표의 차이를 고려한 간호 중재를 개발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Cho, H. S., et al. (1996). *Objectification of constitution diagnosis and study on clinical application*. Seoul : Korea Institute of



- Oriental Medicine.
- Choi, S. M., Chi, S. E., Jung, B. Y., Sung, H. J., Ahn, K. S., & Koh, B. H. (2001).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and body composition. *J of Const Med*, 13(1), 24-34.
- Doo, H. K., & Ahn, S. Y. (1999). Oriental medicine and adult diseases in 21st century. *J of Oriental Chr Dis*, 5(1), 31-39.
- Jung, W. G., & Kim, J. W. (1999).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J of Const Med*, 11(2), 95-117.
- Kang, H. S., Choi, E. S., Lee, J. M., & Jeon, E. Y. (1995). The effects of education according to constitution & charactor of patients who have stroke. *J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2(1), 7-18.
- Kim, E. Y., & Kim, J. W. (1999) A study on the associations between life style of obese patients and Sasang constitutions. *J of Const Med*, 11(1), 185-199.
- Kim J. W., Kim, J. H., & Hwang, E. W. (1992). Clinical study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alcoholic patients- with MMPI & Sasang constitution.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3(2), 65-85.
- Kim, K. B., Kwon, Y. S., Lee, E. J., Suh, E. J., Kim, I. S., Oh, H. K., Jeong, M. Y., & Kim, S. R. (1999). A study of the correlation of lifestyle for health promotion, health status, and degree of life satisfaction based on elderly's Constitution of the Korean. *East-West Nursing Research*, 4(1), 21-33.
- Kim, K. B., Park, S. O. (2001). A study of the correlation of stress and powerlessness based on hemodialysis patients' constitution of the Korea. *East-West Nursing Research*, 6(1), 7-22.
- Kim, K. B., Cho, K. J., Lee, H. Y., Shin, H. S., Kim, K. J., Moon, H. J., Kim, Y. H., Kang, H. S., Park, S. A., & Ji, E. S. (2002). Effect of diet regimen of Sasang constitution on health status. *East-West Nursing Research*, 7(1), 18-31.
- Kim, S. Y. (2000). A study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health status based on adult's constitution. *J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7(3), 441-452.
- Kim, Y. K., Cho, M. R., Chang, R., & Choue, R. W. (2002). Food habits, nutrients intake, and disease distribu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s in the Elderly Aged over 65 Years(II).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7(1), 76-85.
- Kim Y. W., & Kim, J. W. (1998). A clinical study of the judgment of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questionnaire. *J of Const Med*, 10(1), 215-233.
- Kim Y. W., & Kim, J. W. (1999a). The study in objectification of the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J of Const Med*, 11(2), 151-183.
- Kim Y. W., & Kim, J. W. (1999b).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ion classification. *J of Const Med*, 11(1), 119-135.
- Koh, B. H., Kim, S. H., Park, B. G., Lavelle, J. D., Tecun, M., Ross, A., Hobbs, R., Zolli, F., & Chin, K. H. (1999).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among th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 of Const Med*, 11(2), 119-136.
- Lee, J. M. (1986). *DongEuiSuSeBoWon*. Seoul : Haenglim Publishing.
- Lee, K. E., Kim, N. S. & Ryu, J. G. (2002).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 and type A/B personality in Kangwon province. *J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9(2), 201-212.
- Lee, S. H. (2000). Effect of aromatherapy according to the type of Sasang Constitution.

*J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6(3), 372-382.

Lee, S. Y., & Kim, D. R. (1998).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longevity and Sasang constitution. *J of Const Med*, 10(1), 295-309.

Lee, Y. K., & Sul, I. C.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sangchaeil and the results of laboratory examinations. *Taejon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Institute*, 8(2), 383-397.

Moon, H. J., & Jung, S. J. (1996). Nursing approach of four constitutional theory. *J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0(1), 139-154.

Park, S. S., Park, E. K., & Choi, J. Y. (1999). Analysis of inter-questionnaire agreement in determining Sasang constitution. *J of Const Med*, 11(1), 103-117.

Rho, J. W. (1971). *An introduction to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Dept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Shin, K. R. (1999). The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Alternative.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403-1418.

Song, I. B. (1996). *Eas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Sa Sang Sa.

Song I. B. (1998). The future prospect of the studies on the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J of Const Med*, 10(1), 1-11.

Sung, H. J., Choi, S. M., Ji, S. E., & Ahn, K. S. (2000). *Study of objective diagnostic index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Seoul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Study Group of Oriental Medical Nursing (1998). *Oriental medical nursing for university students*. Seoul : HyunMoon Publishing.

Wang, M. J. (1999). *A study on regimen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oriental medical nursing; an approach by the*

*Q-meth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Abstract -

##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Clinical Diagnostic Assay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Park, Jee-Won\**

Purpos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Korea's creative medical science, that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But for lack of indices in objectifying constitutions, there are difficulties for most of health professionals in approaching Sasang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sults of clinical diagnostic data according to the type of Sasang constitution. Method: The subjects were 195 examinees who had a general health check-up at A hospital.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ere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 II(QSCCII) program for personal computer developed by Kim Sun Ho et al. Result: The distribution of constitutions of the subjects were the So-eum 46.7%, the Tae-eum 36.9% and the So-yang 16.4%. The level of body composition-related indices(body weight, obesity) of the Tae-eum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nstitutions. In heart-related indices, systolic BP were the highest in the Tae-eum. In liver-related indices, the level of triglyceride, SGPT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ae-eum. But the hematologic indices and lung-related indices were not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 among any constitution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significant difference of clinical diagnostic data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Tae-eum. So, to understand the human nature of nursing clients, nurses need to apply the oriental based medical theory, like Sasang

constitution, to the discipline of nursing.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s,  
Constitution diagnosis